

PA-20

강원지역 쌀가루 가공용 벼의 이앙시기별 생육특성이지우¹, 조윤상^{1*}, 김성용¹, 정재환¹, 이혜리¹, 송윤호¹, 이지애¹, 고재영¹, 정재혁²¹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²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서론]**

최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생산량 증가 및 의무수입량 등에 따른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쌀가루 산업 육성을 위해 적합 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가루 가공용 품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대별 재배기술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시험은 강원지역에서 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의 이앙시기별 생육특성을 분석하여 원료곡의 최대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강원지역 쌀가루 가공용 품종의 이앙시기별 생육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강원 춘천시 농업기술원내 포장과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벼 이앙시기는 4처리로서 춘천에서는 5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 및 6월 10일에 이앙하였고, 철원에서는 4월 30일, 5월 10일, 5월 20일 및 5월 30일에 각각 이앙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품종은 전주614호, 전주615호, 한가루, 신길 및 설갱 등 5품종이다. 재식거리는 30×15cm로 손이앙 하였으며, 시비량은 벼 표준시비량(N-P₂O₅-K₂O = 9.0-4.5-5.7kg/10a)으로 사용하였다. 기상요소, 생육특성,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수발아율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 및 계통별 출수기는 전주614호 및 전주615호가 가장 빨랐으며 신길, 한가루, 설갱 순으로 출수되었고 춘천지역이 철원지역보다 품종에 따라 1일에서 4일 가량 빠른 경향을 보였다. 출수 후 45일간 등숙기 적산온도는 춘천지역에서 전주614호 1,080~1,245°C, 전주615호 1,092~1,245°C, 신길 907~1,143°C, 한가루 873~1,036°C, 신길 793~959°C의 범위였으며, 철원지역에서 전주614호 1,099~1,166°C, 전주615호 1,099~1,176°C, 신길 982~1,091°C, 한가루 900~943°C, 설갱 838~931°C 범위였다. 10a 당 쌀수량은 두 지역 모두 초다수성 품종인 신길이 631~791kg으로 가장 많았다. 춘천 지역에서 설갱과 한가루는 5월 30일 이앙기까지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쌀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였고 신길은 5월 20일 이앙기에서 최대수량을 보였다. 철원 지역에서는 설갱, 한가루, 신길 품종의 이앙시기에 따른 수량의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조생종인 전주614호와 전주615호는 두 지역 모두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발아는 조생종인 전주614호와 전주615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춘천 지역에서는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철원 지역에서는 조생종은 5월 20일, 중만생종은 5월 10일 이앙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사업번호:PJ012960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82-33-248-6051, E-mail. kky7270@korea.kr